

2021 06

Printing Journal
인쇄저널



일타강사의 현명한 선택

일타페이퍼는 촉감이 부드러워 책냄김과 필기감이 탁월합니다. 특히 무형광 제작으로 눈부심이 없어 수험서 대학교재 학습지 전용지로 개발한 제품입니다.

종이유통문화의 선두기업 



Contents

등록 403호 | 월간 | 비매품 | 1990년 3월 23일 등록
발행인·편집인 김남수 | **발행일** 매월 10일
편집위원장 류영식 | **편집위원** 전준호, 조을기, 채연화
실무 기획홍보팀(오혜경, 표세현) 02. 333. 8631(내선239)
발행처 서울특별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주소 서울시 중구 마른내로 140(쌍림동 146-1)
www.spic.or.kr
인쇄·디자인·DM 에스아이디엠 02. 822. 5114
***표지 이미지에 대한 모든 저작권은 (주)광인사에 있습니다.**
무단으로 이미지 복제를 금합니다.

SIDM 인쇄·디자인·DM발송·한국형 3D 팝업카드 Total Company

DM발송대행 / 정기간행물발송 / 사보,사외보,서적 전문발송 / 각종 소포,택배 포장발송 / 소량 및 다량우편물 포장발송 / 해외 포장발송 / 각종 봉투제작 / 다품종 칼라 디지털인쇄 / 개인가변화 디자인 및 인쇄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방로7길 9 SIDM
TEL 02. 822. 5114 | **FAX** 02. 822. 4414
홈페이지 www.sidm.co.kr | **인쇄쇼핑몰** www.dmpri.co.kr
3D 입체카드 www.leeumdream.com

4	스페셜 테마 보안인쇄와 보안기법③ 보안인쇄의 완성은 디테일에 있다 1
8	새로운 소식 I 2021년도 제2회 정기이사회 개최 외
10	새로운 소식 II 중기중앙회 일자리 정책 토론회 외
11	Notice 조합원 동정 외
12	경영, 알아야 산다 I '중소기업 제값받기 무엇이 바뀌어야 하나' 토론회
14	경영, 알아야 산다 II · 중소기업협동조합 정책 대전환 토론회 · 중기중앙회, "新경제3불 해소해야"
16	클로즈 업 · 세운맵, 인쇄골목 1,100여 개 업체 등록 · 중기중앙회 '직접생산확인 제도개선 토론회'
18	경영전략 · 2021년 국내 경제 전망 · 수출이 경기회복 주도, 경제성장률 4% 예상
20	이슈 신안산대학교 2022년 스마트패키징학과 개설
21	신제품 코니카미놀타, AccurioPress C4080 시리즈 출시
22	문화 서울시, '힐력탐구 흥릉' 문화행사 추진

[보안인쇄와 보안기법③] 보안인쇄의 완성은 디테일에 있다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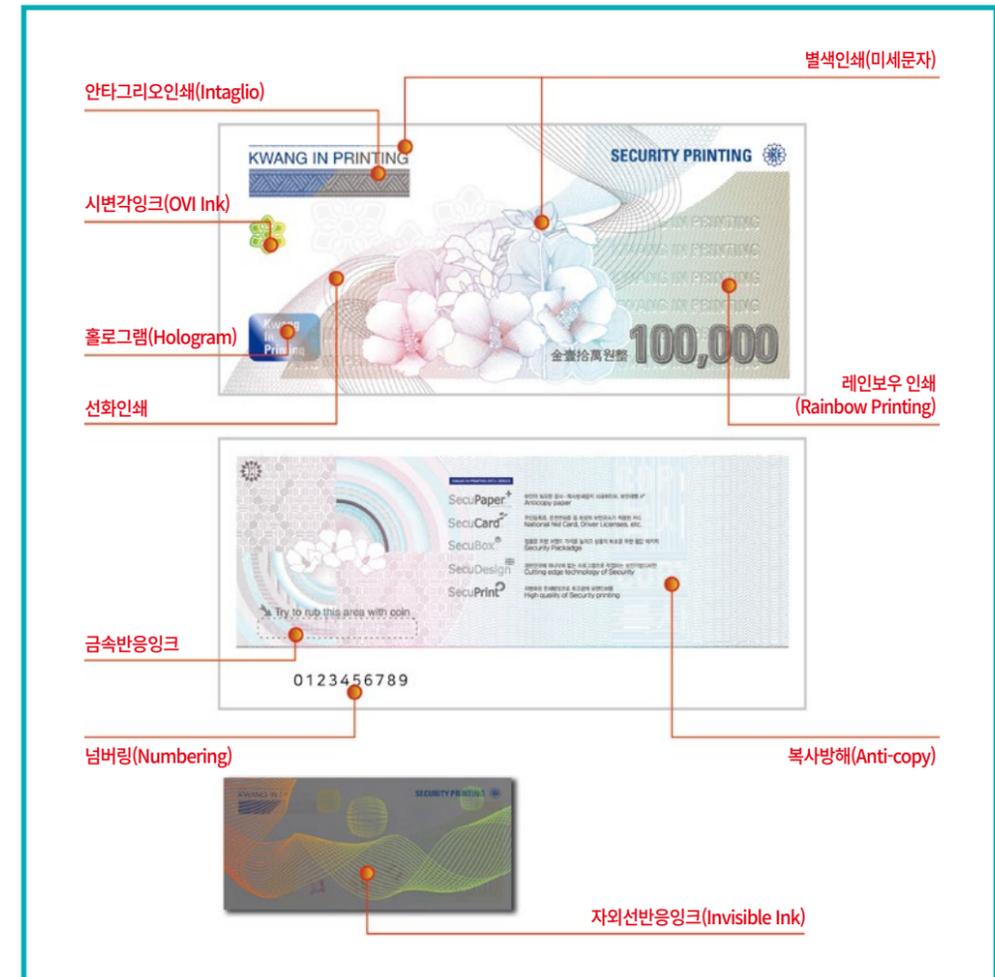
다양한 인쇄기법으로 보안 디자인 요소 완성
섬세하고 디테일한 인쇄기술 필요

보안인쇄기법을 완성시키는 중요한 요소는 지난번에 언급한 기본 보안재료(용지)와 보안디자인 그리고 이번에 설명할 보안인쇄 및 재료가 있다. 이번에는 보안인쇄 방법을 설명하고 다음 회에 보안인쇄 재료를 설명할 예정이다. 편의상 본인이 대표이사로 재직중인 ㈜광인사의 샘플 상품권에 사용된 보안인쇄기법과 추가적으로 몇 가지의 보안인쇄기법을 소개한다. _ 글 ㈜광인사 김종현 대표이사

* 사용된 모든 이미지의 저작권은 ㈜광인사에 있으며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지난 호에서 설명한 기본 재료인 보안용지가 정해지고 이에 맞는 보안디자인이 만들어졌다면 인쇄를 통해서 보안인쇄 제품을 완성시키게 된다. 다양한 보안기술들을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많이 적용되는 보안인쇄기법을 중심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보안인쇄방식은 여러가지 인쇄방식으로 구현되는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식은 역시나 오프셋 인쇄방식이다. 정교한 인쇄를 위해서는 일반인쇄와는 다른 높은 해상도(5,000 dpi 이상)가 필요해 오프셋 인쇄방식을 사용해야 한다. 하지만 보안인쇄에는 오프셋 인쇄방법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다. 재료와 기능에 따라서 요판인쇄(그라비아)나 공판인쇄(스크린)를 사용하기도 하며, 피인쇄체와 재료에 따라서 일반 건조방식 또는 UV건조방식을 사용해야 하는 등 다양한 인쇄방식이 사용된다. 또한 지폐나 유가증권 등 제품의 용도에 따라 정위치 워터마크나 홀로그램을 사용해야 하는 제품은 매엽 방식의 인쇄기를 사용하고 비자나 인지 또는 보안라벨 등의 제품은 롤방식의 인쇄기를 사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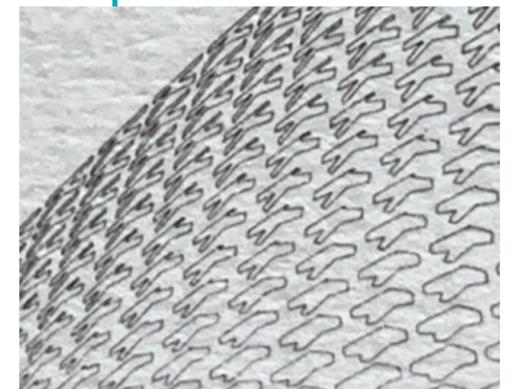


그림에서 보듯이 유가증권에는 용지와 디자인을 제외하고도 다양한 보안요소들이 포함되어 있다. 보안인쇄 및 보안기법 중 이번에는 보안인쇄를 먼저 소개하고, 다음에는 보안기법을 설명하고자 한다.

SPOT COLOR WITH LINE

선화 별색인쇄

보안인쇄의 기본은 보안디자인에서 사용한 선화기법을 인쇄로 표현하는 작업이다. 선화로 이뤄진 디자인을 표현하는 방법은 대부분 별색으로 작업한다. 그래서 선과 면 하나하나가 모두 다른 색상으로 표현된다. 별색인쇄의 장점은 원하는 색상을 원하는 이미지에 정확하게 표현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다만 여러가지 색상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별색을 개별로 제조해야 하고 각각의 별색마다 각각의 판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부분 다색 작업으로 진행된다. 또한 정교한 인쇄가 필요하기 때문에 고해상도 필름 또는 판으로 출력하여 오프셋인쇄기를 사용한다. 정교함을 높이기 위해서 무수수 방식으로 작업하기도 한다.



MICRO TEXT

마이크로텍스트

미세문자는 주요 로고나 텍스트를 디자인상에 숨겨놓거나 패턴 방식으로 삽입하는 것을 말한다. 특성상 고해상도로 출력하여 별색으로 인쇄한다. 보안인쇄에서 마이크로 텍스트는 보통 1point 이하의 텍스트를 사용한다. 육안으로는 구별이 어렵고 루페나 확대경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보통은 선처럼 보이게 디자인하거나 텍스트로 특정부분을 채우기도 한다. 마이크로 텍스트는 오프셋인쇄 뿐 아니라 훨씬 정교하고 미세하게 홀로그램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기법이다.



RAINBOW PRINTING

레인보우인쇄

선화로 만들어진 디자인에서 같은 선이지만 2가지 이상의 색상을 만들어내는 보안인쇄기법을 레인보우인쇄라고 한다. 실제로는 2가지 색상이 섞여서 여러 가지 색상을 표현하게 된다. 레인보우인쇄는 별색 선화인쇄 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간 보안인쇄기법이다. 별색 선화인쇄를 스캔해서 다시 출력하게 선이 망점으로 바뀌게 되는데, 레인보우인쇄를 스캔하면 색상이 달라지는 부분에서 선의 색이 망점으로 표현되어 원본과 복사본의 차이를 확연히 알아볼 수 있다. 레인보우 인쇄는 레인보우유닛을 통해 두 가지 색상의 잉크를 자연스럽게 섞어서 표현하는 기법으로 오프셋인쇄가 아닌 다른 인쇄방식은 물론 디지털인쇄에서도 구현이 불가능하다.



INTAGLIO PRINTING

인타그리오인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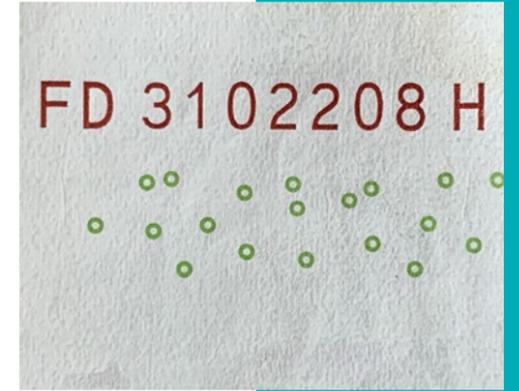
인타그리오인쇄는 화폐에 적용되는 요판인쇄(그라비아) 방식의 보안인쇄기법이다. 동판에 레이저나 에칭으로 만들어진 픽셀에 잉크를 채워서 찍어내는 방식으로 기본적 원리는 그라비아 인쇄와 동일하지만 잉크의 농도와 양, 그리고 픽셀 깊이가 일반 그라비아와는 차이가 있다. 안타그리오 인쇄는 보통 지폐의 주요 그림(초상화, 건물 등)에 사용하며, 볼록한 질감 때문에 손으로 보안인쇄를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안타그리오는 동판에 새긴 픽셀의 기울기를 통해서 숨은 그림이나 문자를 나타내게 하는 등 특수한 표현이 가능하다. 우리나라의 지폐의 경우, 전면 초상화와 후면 주요 그림이 안타그리오로 작업되었으며 전면 오른쪽에 중간에 있는 동그란 표시는 맹인을 위한 지폐의 단위를 확인하는 표식으로 사용된다.



NUMBERING

넘버링

화폐나 유가증권은 각 장마다 고유번호가 지정된다. 고유번호는 일반적으로 일련번호와 보안코딩이 포함된 조합으로 만들어진다. 이는 넘버링 유닛을 이용한 기계넘버링과 디지털인쇄방식의 디지털넘버링으로 작업된다. 기계유닛 방식은 활판인쇄 방식으로 정해진 모양과 크기 및 조합만이 가능한 단점이 있지만 사용할 수 있는 잉크가 다양하다. 디지털인쇄방식은 보안코딩을 포함한 다양한 형식의 고유번호 부여가 가능하며 사실상 형식의 제한은 없지만 디지털인쇄기의 방식에 따라서 공급가능한 잉크와 토너에 따른 제한이 있다. 넘버링 자체의 보안 기능을 높이기 위해서 숫자 크기나 서체의 굵기를 변화시키는 등의 보안 효과를 가미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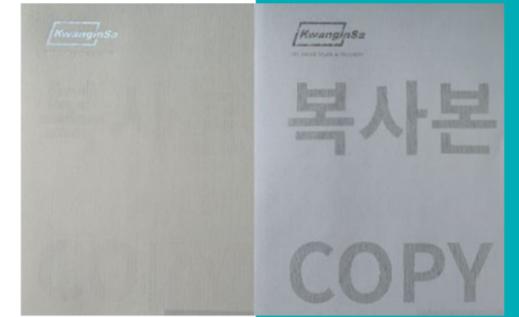


한국지폐 1만원권 넘버링

ANTI-COPY PRINTING

복사 방지

복사방해기법은 복사 시 복사기가 인식할 수 있는 망점이나 선과 인식할 수 없는 망점과 선을 이용하여 복사 및 스캔 시 특정한 문양이나 문구가 나타나도록 해 원본과 복사본을 구별할 수 있게 만드는 기법이다. 또한 원천적으로 복사 자체를 거부하게 하는 기법으로 'EURion constellation(별자리)'이 있다. Markus Kuhn이 처음으로 발명한 것으로 화폐(지폐)에만 사용이 허용되어 있다. 5개의 작은 원의 패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복사 거부기능이 있는 컬러 복사기가 이 패턴을 감지하면 복사가 원천적으로 거부된다. 참고로 2003년부터는 Adobe Photoahop CS와 같은 디자인 프로그램에서도 지폐 인쇄가 거부된다.



미국 10달러 화폐 왼쪽 상단에는 'EURion constellation'이 '10' 숫자 뒤에 숨어 있다.

LATENT IMAGES

잠상인쇄

일정한 패턴을 망점이나 선화디자인에 심어 놓고 동일하거나 비슷한 패턴을 가진 필름으로 이미 인쇄된 패턴과 겹치면서 생기는 간섭현상으로 숨겨진 모양이나 글자를 확인할 수 있는 디자인기법과 인쇄방식을 의미한다. 보통은 인쇄에서 간섭현상은 망점들이 겹치면서 모아레라는 현상으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이를 역이용하는 방식의 보안인쇄 기법이다.

이번 호에서는 다양한 보안인쇄기법 중 대표적인 기술들을 위주로 다루었다. 다음 호에서는 보안재료와 관련 인쇄기법들을 설명할 예정이다. (다음 호에서 계속)



특수 잠상 기술 적용된 정품인증용 패키지(사진제공_한국조폐공사)

Printing Journal NEWS

06
JUNE

2021년도 제2회 정기이사회 개최 1분기 사업 현황 보고 및 추진 사업 소개



조합은 지난 5월 25일 노보텔엠베서더 호텔 PDR룸에서 2021년도 제2회 정기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번 이사회는 지난 이사회와 마찬가지로 정부 방역지침 준수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약식으로 진행했으며 안전으로는 2021년 1분기 사업현황 및 재무제표가 상정됐다.

이날 김남수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코로나19로 경영환경이 매우 어려운 가운데 연초부터 잉크와 종이 가격마저 급격히 상승해 경영에 어려움이 많으실 것”이라며 “조합은 잉크업계와의 간담회, 편집프로그램 및 인쇄서체 공동구매 프로모션, 중소기업 공동구매 전용 보증제도 등을 통해 경영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합원 권익 보호 및 신규 사업 보고

팬데믹 속에서도 조합원의 권익보호를 위해 ▲인쇄업계와 잉크업계 간담회 개최 ▲인쇄용지 가격 인상에 따른 제지업체 협조 요청 ▲서울시장 보궐선거 정책간담회 건의사항 제출 ▲인

쇄업체 등록 및 연간 단가계약 시 FSC 인증 가산점 인정 요청 ▲서울시장 중소기업인 간담회 및 서울지방조달청장 초청 간담회 건의 및 정책자료 제출 등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왔다. 특히 지난 3월 잉크업계와의 간담회에서 잉크품목에 따라 20~30%에서 15% 내외로 인상률을 조정했고, 인상 시기도 3월 1일에서 4월 1일로 늦춰졌다.

이로써 인쇄업계는 인상 유예 기간 동안 미리 인상 전 가격으로 잉크를 구입해 비축할 수 있게 됐다.

이밖에도 오는 7월부터 시행 예정인 중소기업 공동구매 전용 보증제도는 자금이 부족한 조합원사가 보증을 통해 일반대출에 비해 약 4.5% 가량 저렴하게 원자재를 구매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현재 2008년에 개발되어 보안과 업데이트에 취약한 현재 조합 홈페이지를 리뉴얼해 조합원들의 조합 홈페이지 활용도를 높이는 동시에 신속한 정보전달이 이뤄지게 할 예정이다.

한편 불법 프로그램 사용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합원들을 위해 어도비 크리에티브 클라우드 프로그램 및 인쇄용 서체 공동구매 프로모션도 시작했다.

2차 프로모션은 오는 7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이며, 조합 홈페이지 내 프로모션 소개 팝업창을 클릭하면 프로모션 사이트로 이동하게 되며 안내에 따라 서류 제출 및 결제를 진행하면 된다.

‘수도권대기환경청장과 인쇄업계 간담회’ 개최 여름철 오존 특별대책 추진을 위한 협력 방안 논의



조합은 지난 5월 25일 조합 회의실에서 ‘수도권대기환경청장과 인쇄업계 간담회’를 개최하고 수도권 대기 환경 개선을 위한 인쇄업계의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김남수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인쇄산업은 도시를 떠나서는 사업을 할 수 없는 대표적인 도심제조산업으로 오래전부터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Soy잉크를 비롯해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싼 무용제 잉크를 사용하는 등 스스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며 “하지만 영세한 업체가 많아 정부 지원이나 도움 없이 친환경 경영을 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중장기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서 안세창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최근 수도권 지역의 오존 농도 및 주의보 발령 일수 및 횟수 증가, 기후변화 및 여름철 최고기온 상승으로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면서 “오존이나 VOC(휘발성 유기화합물) 저감은 사업장의 협조 없이는 큰 성과를 내기 어려운 만큼 조합이나 업체에서 효과적인 방안을 제안해 준다면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친환경 경영 인쇄업체 조사 및 지원 정책 마련 ▲친환경 잉크 사용 업체에 대한 구체적 지원책 마련 ▲VOC 저감 장비 설치비 지원 ▲친환경 인쇄업체 인증제 도입 ▲친환경 잉크 사용 시 입찰 가점 등 실질적인 대응책을 마련해 수도권 대기 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약속했다.

중기중앙회, ‘협동조합 공동사업 활성화 간담회’ 개최 중소기업 지위 인정에 따른 협동조합 공동사업 활성화 방안 모색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지난 5월 13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주간행사의 일환으로 ‘협동조합 공동사업의 미래를 모색하다’라는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활용 가능한 중소기업 지원시책을 협동조합에 알리고 활용 방안 및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60여 명의 협동조합 이사장 및 임직원들이 참석해 관심을 보였다.

그간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 단독 수행이 어려운 협업 및 공동사업을 위해 자발적으로 설립된 경제주체임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중소기업 지원시책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중소기업 육성시책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중소기업기본법을 개정하여 금년 4월 21일부터 정부 및 지자체의 중소기업 지원시책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정부 및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시책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참여 가능한 중소기업 지원시책을 4개 분야 16개 과제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R&D 지원시책 참여를 위한 협동조합 준비 방안과 한국가스판매업협동조합연합회 및 한국출판협동조합이 지원시책을 활용한 공동사업 사례 발표시간을 가졌다.



중기중앙회 ‘포스트 코로나 중소기업 일자리 정책 토론회’ 개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로 위기 극복해야”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5월 17일 여의도 중기중앙회관에서 ‘포스트 코로나 중소기업 일자리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이후 양극화 해소 및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 중소기업 중심 일자리 창출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주보원 노동인력위원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고용노동정책은 패러다임 전환 속에서 중소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바탕으로 노사가 함께 상생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임시총회 개최 비상임 부회장 14명 및 이사 18명 신규 선출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5월 10일 여의도 중기중앙회관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중기중앙회는 지난 2월 제59회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서면의결이 가능한 2021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등의 안건은 의결했으나,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 서면의결이 불가능한 임원 선출 안건은 이번 임시총회를 통해 심의하였다. 이번 임시총회에서는 비상임 부회장 14명과 비상임 이사 18명을 신규 선출했다.



한국후지필름BI, 고성능 A3 컬러 복합기 대거 출시 오피스 통합 브랜드 ‘아페오스(Apeos)’ 출범

한국후지필름비즈니스이노베이션 주식회사가 자사의 새로운 오피스 통합 브랜드 ‘아페오스(Apeos)’를 출범하고, 전문 인쇄 작업부터 비즈니스 업무 영역까지 지원하는 다목적 고성능 A3 컬러 복합기 12종을 출시했다고 지난 5월 12일 밝혔다. ‘아페오스’는 프린터 및 복합기 제품에 국한됐던 기존 브랜드에서 한 단계 나아가, 하드웨어와 솔루션 및 서비스까지 포괄하는 새로운 오피스 통합 브랜드다.



Notice



어도비 제품 및 인쇄용 서체 프로그램 할인 프로모션 실시

최근 불법 프로그램 및 서체 사용 단속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조합은 어도비 제품 및 인쇄용 서체 프로그램 할인 프로모션을 실시했습니다. 지난 5월 24일부터 6월 3일까지 1차 프로모션을 진행했으며 2차는 7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진행됩니다. 참여 방법은 조합 홈페이지 팝업창 클릭 후 연결된 사이트에서 서류 제출 및 온라인 결재를 진행하면 됩니다.

• 문의 : 02-333-8631(내선258)

2021년 인쇄업계 실태조사 실시

조합은 인쇄문화산업진흥 정책 수립 및 활성화 전략 구축을 위한 기준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는 심층적인 인쇄기업 정보와 실태조사 및 의견 수렴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협회, 연합회 주관하에 ‘2021 인쇄산업실태 표본조사 사업’을 6월 1일부터 30일까지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참가 방법은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1146번)에서 설문지를 다운 받아 작성하신 후 조합으로 팩스(02-334-8731)나 이메일(sp8631@naver.com)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 문의 : 02-333-8631(내선258)

▶ 조합원사 변동

업체명	변동 전	변동 후	변경 사항
나우종합인쇄	서울 중구 을지로20길 20	서울 중구 을지로18길 19 (신도빌딩, 506호)	주소
(주)이노에이티브디자인	서울 종로구 이화장길 20(이화동)	서울 중구 수표로 45, 304호 (저동2가, 비즈센터)	
전광인쇄정보(주)	서울 강서구 양천로 694-16(염창동)	서울 강서구 마곡서로 158, 910호 (마곡동, 마곡센트럴타워2차)	
리베로시스템(주)	안상원	김종관	대표자
디자인페이지플러스(주)	디자인페이지 서울 중구 창경궁로 6, 701호 (충무로5가)	디자인페이지플러스(주) 서울 중구 서애로 12-6, 3층 (충무로5가)	상호, 주소
(주)세원플랜	세원문화사 정광채	(주)세원플랜 김순희	상호, 대표자

▶ 결혼

• 금양문화사 김상섭 대표의 장녀 민정 양이 5월 30일 더리버사이드호텔 6층 몽블랑홀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 부고

• 천일 김사홍 대표의 부인께서 지난 5월 18일 별세했다.

中企중앙회·산업연·中企연, “중소기업 제값받기 이대로는 어려워, 제도 개선 시급”

납품대금 연동 및 조정 효력 강화 등 제도의 실효성 제고 주장



중소기업중앙회, 산업연구원(원장 장지상)과 중소기업연구원(원장직무대행 이동주)은 5월 12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 제값받기, 무엇이 바뀌어야 하나’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원자재 가격 및 물류비 상승 등으로 생존을 위협 받는 중소기업의 고질적인 애로사항인 중소기업 제값받기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 모색을 위해 마련되었다.

예정가격 결정 방법 등 공공구매제도 문제점 산적

이날 토론회에는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장, 한무경 국민의힘 중소기업위원장, 장지상 산업연구원장, 이동주 중소기업연구원장 직무대행, 박종찬 중소벤처기업부 상생협력정책관 등이 참석하였다.

서승원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코로나

19로 침체된 기업활동이 다소 회복세임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45%가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대금에 반영받지 못하고 있다”며 “무엇보다도 중소기업 제값받기는 코로나19 이후 경기 회복과 양극화 해소를 위해 대단히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공정계약문화 정착을 위한 공공조달 제도 개선방안’을 발제한 김은하 중소기업중앙회 연구소 연구위원은 “코로나19 위기 이후 중소기업의 생산감소폭은 대기업 2배 이상으로 코로나 이후 가장 시급한 해결과제로 양극화가 떠오르고 있다”며 “조달 등록 기업 45만 개 중 97%가 중소기업으로 이는 전체 중소기업의 12% 수준인 만큼 공공조달은 중소기업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는 주요 판로로 중소기업의 납품대금 제값받기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또 그는 “현재 정부의 막강한 구매력과 협상력으로 입찰 절차나

방식, 지불조건 등이 수요자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어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며 “대표적으로 계약금액 결정 및 조정, 계약 금액의 결정,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불필요한 기간 요건 및 과도한 금액 기준 등”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김 연구위원은 해결책으로 “기업 제출 거래증빙자료의 거래실례가 인정 등 예정가격 결정 제도 개선과 물품 단품조정 제도 도입 등 물품계약의 물가변동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먼저 발제에 나선 지민용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전속거래 실태와 정책적 시사점’에서 자동차부품산업 전속거래의 문제점으로 수탁기업이 생존을 위해 위탁기업 위주의 납품단가 책정을 수용해야 하는 수요독점적인 대-중소기업 생태계를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근본적으로는 수요독점적인 시장구조의 변화 및 수탁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통한 협상력 제고를 위한 전방위적 제도개선이 필요하고, 우선 일관되고 지속적인 불공정거래 제재, 납품대금 조정협의 실효성 제고 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제값받기는 중소기업의 가장 중요한 문제

나경환 단국대학교 산학부총장의 진행으로 이어진 종합

토론에서는 ▲정한성 한국파스너공업협동조합 이사장 ▲홍성규 한국전선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신영수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남주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민변) ▲박종찬 중소벤처기업부 상생협력정책관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미래전략연구단장 ▲김병진 조달연구원 혁신조달연구센터장이

참석하여 중소기업 제값받기에 대한 다양한 정책대안이 논의되었다.

특히 홍성규 한국전선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전선의 원재료인 구리, PVC, 에틸렌 가격이 작년 대비 2배 급등한 상황에서 원재료 생산 대기업은 인상된 가격을 일방적으로 중소기업에게 통보하고, 전선 수요처인 대기업은 원재료 인상분을 제대로 반영해주지 않아 현장은 아우성을 치고 있다”며, “대기업에서 원재료 가격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해주더라도 차일피일 미루거나 일부만 반영해 줘서 체감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김남주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민변 민생위)는 “중소기업 제값받기는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로, 조달 분야의 물가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납품대금 물가지수 연동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이를 민간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토론회를 주관한 서승원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중소기업 제값받기는 정부를 비롯한 모든 경제 주체가 함께 논의해야 할 문제이며, 코로나 격차와 불평등 해소를 위해 국회와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중소기업협동조합 정책 대전환 토론회’ 개최

개정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및 정책 변화 고찰
협동조합의 자생적 성장 방안 모색

중소기업중앙회는 5월 10일 중소기업중앙회 2층 상생룸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 정책 대전환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장, 한무경 국민의힘 중소기업위원장 공동 주최로 진행됐으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소기업자 지위 인정 등 최근 정책 변화와 관련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향후 정책 방향과 협동조합의 자생적 성장 방안 모색을 위해 마련됐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자체의 중기협동조합 육성 조례 제정’과 ‘협동조합의 중소기업자 지위 인정’ 등의 성과를 언급하며, “변화된 중기협동조합 정책에 맞게 조합이 영업활동을 하듯 발로 뛰어야 한다”며 조합의 변화를 주문했고,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중기협동조합의 사회적 역할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인프라가 충분치 못한 부분이 아쉽다”고 밝혔다.

현 중소기업협동조합 정책 ‘모호’

장승권 한국협동조합학회장은 발제를 통해 ‘중기협동조합은 비영리 조직이나 시장에서 경쟁·협력해야 하는 사업체’라며 “기본법상 조합과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조합의 상당수가 사업자협동조합임에도 기재부와 중기부로 부처가 양분되어 있고 협동조합 시각과 지원수단 등이 모두 상이”하고 “협동조합 중 사업자·소상공인 협동조합은 중기부로 통합 조정하고, 중기협동조합 정책도 사회정책 영역으로 확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패널토론은 송창석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장 주재로 진행되었으며, 이동주 중소기업연구원장 직무대행, 오동윤 동아대 경제학과 교수, 조경원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총괄과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이동주 중소기업연구원장 직무대행은 협동조합의 자생적 성장을 위해서는 우선출자제 신설 등 협동조합의 사업모델 구축을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며 오동윤 동아대 교수는 제조, 도소매 등 업종별 협동조합을 R&D, 디자인, 조달, 마케팅 등 업무별 협동조합 중심으로 변화시켜야 한다고 발언했다. 조경원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총괄과장은 중소기업자 지위 인정 변화에 따라 협동조합이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를 언급하며, 중기협동조합 발전을 위한 정책적 지원 노력을 약속했다.



거래 불공정·시장 불균형·제도 불합리 해결돼야

중소기업중앙회, 新경제3불 해소 정책토론회 개최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5월 13일 중소기업중앙회 KBIZ 홀에서 ‘新경제3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新경제3불은 2011년 경제민주화의 단초를 이끌어냈던 ‘중소기업을 힘들게 하는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인 경제3불’을 최근의 중소기업 현안에 맞게 재해석한 개념이다.

원·하청거래 시 ‘거래의 불공정’, 유통시장에서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간 ‘시장의 불균형’, 정부와 공공기관이 중소기업 판로를 지원한다면서 제도적으로 최저가 입찰을 유도해 중소기업이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제도의 불합리’를 의미한다.

이날 토론회는 이학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이병헌 대통령비서실 중소벤처비서관 등 공

정경제 분야 입법과 정책을 총괄하는 책임자가 모두 참석했다.

주제발표는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이, 토론회는 국내 동반성장분야 최고 권위자인 곽수근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장, 이정희 중앙대학교 교수, 조봉현 IBK기업은행 부행장, 허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상임부위원장, 김남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개혁입법특별위원회 위원장 등 정부, 학계, 연구계, 노동계 및 시민사회 대표가 패널로 참여했다.

新경제3불 해소해야 상생형 경제생태계 조성 가능

발제에 나선 추 본부장은 “우리 경제는 0.3%의 대기업이 전체 매출의 47.3%와 전체 영업이익의 57.2%를 가져가는 구조다 보니 대·중소기업 양극화가 지속되면서 중소기업은 생산성 하락과, 임금 지급 여력 악화, 투자 부진이라는 합병증을 앓고 있다”면서, “중소기업의 합병증으로 인해 산업경쟁력이 약화되고 일자리가 부족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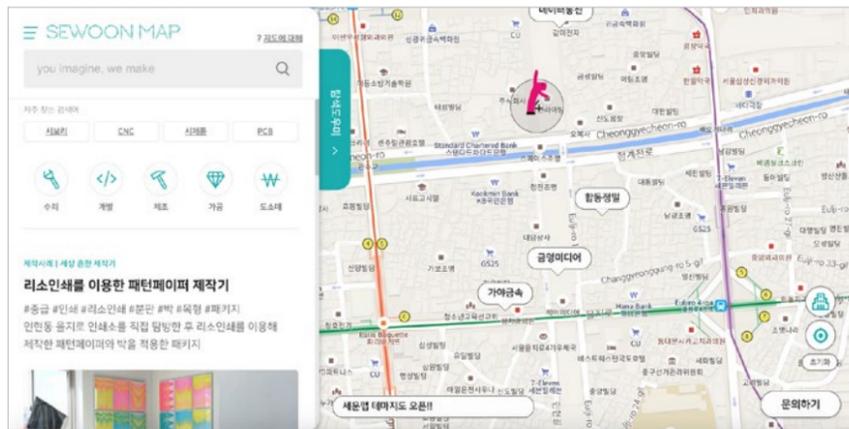
또한 新경제3불 해소를 위한 10대 정책과제로, ▲납품대금 조정협약의 실효성 확보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불공정 거래 근절 시스템 마련 (이상 거래의 불공정) ▲온라인 플랫폼 공정한

조속 제정 ▲대규모유통업거래공시제도 도입 및 유통거래 실태조사 세분화 ▲입점업체 단체구성 및 협상권 부여 (이상 시장의 불균형) ▲최저가 낙찰 유도 개선 ▲예정가격 산정제도 개선 ▲부정당 제재 현실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분리발주의무 준수(이상 제도의 불합리)를 제안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양극화는 경제격차 문제를 넘어 사회적격차와 갈등을 부추겨 불필요한 비용을 유발하고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부작용을 초래한다”며, “新경제3불 문제가 해소되지 않으면 기업 간 이중구조 심화와 사회계층간 갈등확대로 코로나19 이후 한국경제 재도약에 커다란 장애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인쇄골목 1,100여 개 업체 온라인 지도로 한눈에 본다

‘세운맵’에 인현동 인쇄업체 정보 1,100여개 추가 지도 기반 업체명, 주소, 연락처, 전문 분야 검색 가능



앞으로 서울시내에서 인쇄사 찾기가 쉬워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을지로3가역과 충무로역 사이, 인현동 인쇄골목에 밀집한 1,100여개 인쇄사 정보를 온라인 산업지도 ‘세운맵’(map.sewoon.org)에서 한눈에 찾아볼 수 있도록 업데이트했다고 밝혔다. 인현동은 인쇄·출판물 기획부터 제작, 후가공까지 모든 인쇄공정이 이뤄지는 인쇄산업 밀집지역으로 중소기업 인쇄사가 밀집해 있어 ‘인현동 인쇄골목’이라 불린다. 서울시는 2020년 4월 ‘세운맵’을 오픈하며 기계·전자·디자인·음향 등 3,000여 개 제조업 정보를 제공한 바 있으며 이번 업데이트로 인쇄업까지 총 4,100여 개의 도심 산업체 정보를 망라하게 됐다. 세운맵은 도심산업을 활성화하고 사용자와 도심산업체를 보다 쉽게 연결하기 위해 사업체 정보 및 사례 콘텐츠를 구축한 온라인 플랫폼으로 예지동, 입정동, 산림동, 장

동네열전, 기술용어, 테마지도 등 도심제조업과 관련된 다양한 콘텐츠를 소개해 단순 지도 서비스와 차별화했다. 특히 제조업 밀집지역의 특성을 살린 정보를 접목시켜 세운상가 일대를 처음 접하는 시민도 수월하게 업체를 탐색, 이용할 수 있게 했다. 특히 세운일대에서 제작된 제품소개 및 제작과정을 소개하고 도심제조업에 대한 다양한 생각을 게재할 수 있는 코너도 있다. 또한 을지로 일대 생활, 역사에 대한 소개, 기술용어 정리, 테마지도 제공을 통해 사이트를 찾는 소비자와 적극 소통하고 있다. 세운맵은 별도의 회원가입 절차 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세운맵’에 업체 등록을 원하는 경우 홈페이지를 통해 요청하면 되고, 세운·청계천·을지로 일대에 있는 업체라면 무료로 신규 등록하거나 정보를 수정할 수 있다.



사동 등 세운상가 일대 3,000여 개 도심제조업체의 품목, 전화번호, 위치 등을 제공하고 있다. 더불어 ‘세운맵’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의 특징과 정보를 시각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사진자료도 대폭 보강했다.

소비자와 소통하는 맵 서비스

세운맵은 제작사례, 칼럼, 동네열전, 기술용어, 테마지도 등 도심제조업과 관련된 다양한 콘텐츠를 소개해 단순 지도 서비스와 차별화했다. 특히 제조업 밀집지역의 특성을 살린 정보를 접목시켜 세운상가 일대를 처음 접하는 시민도 수월하게 업체를 탐색, 이용할 수 있게 했다. 특히 세운일대에서 제작된 제품소개 및 제작과정을 소개하고 도심제조업에 대한 다양한 생각을 게재할 수 있는 코너도 있다. 또한 을지로 일대 생활, 역사에 대한 소개, 기술용어 정리, 테마지도 제공을 통해 사이트를 찾는 소비자와 적극 소통하고 있다. 세운맵은 별도의 회원가입 절차 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세운맵’에 업체 등록을 원하는 경우 홈페이지를 통해 요청하면 되고, 세운·청계천·을지로 일대에 있는 업체라면 무료로 신규 등록하거나 정보를 수정할 수 있다.

중기중앙회 ‘직접생산확인 제도개선 토론회’ 개최

제조업 현실 반영하기 위한 직접생산확인제도 개선해야 중소기업 간 협업 및 분업 활성화에 초점을 맞출 필요 있어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5월 14일 중소기업DMC타워에서 ‘직접생산확인 제도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중소벤처기업부와 공동 주최로 진행됐으며, 변화하는 제조업의 현실을 반영한 효율적인 직접생산확인 제도의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열렸다. 동아대학교 정남기 교수는 발제를 통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와 직접생산 확인제도는 160조원에 달하는 공공조달시장을 통한 중소기업의 판로 확보 및 안정적인 성장 사다리 역할”을 하고 있으나, “한 업체가 여러 공정을 직접 수행해야 한다는 점에서 중소기업간 협업 및 업종별 전문화 트렌드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언했다.

이를 위해 직접생산확인 기준에 대해 “자유 경쟁, 기업 경쟁력 강화, 적정 품질 유지, 국익에의 합목적성 원칙”을 적용하고 “중소기업 간 협업 및 분업 활성화를 통한 중소기업의 전문성 강화와 경쟁력 확보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부 기준 마련을 위해 업계 의견 수렴이 필요

패널토론은 오동운 동아대 경제학과 교수 주재로 진행되었으며, 중소벤처기업부 이화정 사무관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이화정 중소벤처기업부 사무관은 “국내 소재·부품 업체로의 파급효과 확산을 위해 핵심부품에 대한 원산지 공개 및 국산 부품 활용도가 높은 제품의 구매 확대가 필요”하며, “하청 납품 등 제도 위반 사례 근절을 위한 사후관리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병건 한국조달연구원 혁신조달지원센터장은 “효과적인 제도개선은 운영 방향에 대한 고찰을 통한 방향성을 먼저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며, “개선 이후 실제 효

율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서는 충분한 실행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절한 예산과 전문성을 확보할 필요”를 언급했다. 권경현 법무법인 진운 대표변호사는 “세부 기준 마련을 위해서는 시장구조와 기업 생태계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과 업계 의견 수렴이 필요”하며, “직접생산확인기준 위반 및 취소와 관련해 중소벤처기업부와 조달청 간 합리적인 역할 조정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용우 중소기업중앙회 공공구매지원부장은 “새로운 융복합 산업의 등장에 따라 생산(제조)의 개념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직생제도의 안정적이고 효율적 운영을 위해 직생 위반 사전예방 등을 위한 사후관리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2021년 국내 경제 전망] 수출이 경기회복 주도하며 올해 경제성장률 4%대 성장 예상

경기회복, 제조업 부문이 이끌 것으로 전망
1분기 중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보여



수출이 주도하는 경기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올해 국내경제는 4%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이다. 선진국 소비 회복과 글로벌 공급능력 확충으로 우리나라의 IT부품, 수송기계, 내구재 수요가 꾸준히 확대될 것이다. 백신 보급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야외활동과 사회적 거리두기 규제가 강화와 완화를 반복하며 소비회복세가 빨라지지 못하고 정체되는 상황이 3분기까지 이어질 것이다. 출처_LG경제연구소

올해 들어 수출이 높은 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 위축되었던 소비도 호전되면서 국내경기의 회복세가 뚜렷해지고 있다. 경기회복은 제조업 부문이 이끌고 있는데 생산과 출하가 빠르게 늘어나는 가운데 재고가 줄어드는 경기회복 초기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도 1분기 중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추정된다. 금년 중에는 수출이 경기를 주도하는 상황이 이어질 것이다. 세계교역은 지난해 4분기에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했고 올해 들어서도 상승세가 더 높아지는 모습이다. 미국, 중국이 세계경기를 이끌고 유럽, 신흥국 등도 하반기 이후 점진적으로 회복되면서 세계교역이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일 전망이다. 수요확대에 대비해 부족한 공급능력을 확충하는 과정에서 IT부품, 기계류, 자동차, 선박 수요가 늘고 경기회복 기대로 내구재 소비도 확대되는 등 우리 주력 제품에 대한 글로벌 수요가 계속될 것이다. 제조업 가동률 상승으로 국내 설비투자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경제활동이 서서히 재개되면서 내수경기도 심각한 위축에서 점차 벗어나겠지만 올해에도 여전히 코로나 이전 수준을 되찾기 어려운 점진적 회복에 머물 것이다. 음식숙박, 문화예술서비스 등 대면경향이 강한 서비스 부문 생산은 코로나 이전 대비 70~80%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도소매 서비스도 여전히 정상화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방역 피로감 증가로 올 들어 야외 및 대면 활동이 늘었지만 이로 인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은 쉽게 줄어들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백신 보급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야외활동

과 사회적 거리두기 규제가 강화와 완화를 반복하며 소비회복세가 빨라지지 못하고 정체되는 상황이 3분기까지 이어질 것이다. 올해 국내경제 성장률은 4.0%를 기록하여 금융위기 이후의 반등기였던 2011년 이후 가장 높은 성장세가 예상된다. 다만 내수경기 회복세가 미진하고 지난해 주요국 중 코로나 충격을 적게 받아 기저효과가 크지 않다는 점에서 세계성장률 전망치인 6.0%에는 못 미치는 수준이다.

경기 후행하는 고용은 올해 미진한 회복에 그칠 것

경기회복은 비교적 빠르게 진행되었지만 고용회복은 훨씬 느린 속도로 이루어질 것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시 고용은 생산보다 5개월 정도 늦게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지만 이번 코로나 위기 시에는 지난해 5월 생산저점 이후 9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뚜렷한 고용회복이 확인되지 않는다. 고용유발 효과가 큰 전통 서비스 부문의 수요회복이 지연되면서 생산증가가 노동수요로 잘 이어지지 않는 현상이 계속될 것이다. 더욱이 코로나 확산 경험으로 노동력에 의존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자동화 투자 등을 통해 고용을 대체하는 경향도 확대될 것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일시적으로 2% 상회하겠으나 하반기 안정

국내 소비자 물가는 원자재 가격 상승, 기저 효과 영향으로 상승

할 것이나 고용 부진이 이어지고 서비스 회복이 지연돼 올해 1% 중반 상승세가 예상된다. 작년 하반기 이후 국제유가 등 원자재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고, 겨울 한파로 식품 가격이 상승하면서 공급 측면에서 물가 상승 압력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국내 경기 회복으로 수요 측면의 물가 상승 압력도 높아지면서 기저효과 영향이 커지는 올 여름 소비자 물가는 일시적으로 2%를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하반기 국제유가가 안정세를 보이고 식품품 가격 급등 현상이 진정되면서 물가상승 압력은 점차 약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 부진으로 임금 상승이 제한되고, 백신 보급 지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가 반복되며 외식, 숙박, 여행 등 서비스 물가의 본격적인 회복은 4분기어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소비는 올해 코로나 이전 수준 회복 어려울 것

소비는 지난해 말 코로나 재확산으로 연초까지 심한 부진을 겪었으나 2월 이후 다소 회복되는 움직임이다. 내구재 수요 확대에 힘입어 상품소비가 빠른 회복세를 보이는 가운데 서비스 소비 중에서도 대면시간이 길지 않은 오프라인 소매점 판매와 외부활동을 위한 의류 및 신발 판매가 늘어난 등 소비가 다소 회복되는 모습이다. 그러나 대면성이 높은 서비스 소비, 즉 음식숙박, 여가문화 서비스, 개인서비스 등은 올 1, 2월 중에도 코로나 이전의 70% 내외에 머무는 등 여전히 심한 위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이다. 3분기까지 확진자 수가 크게 줄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할 때 소비의 회복이 본격화되기는 어려우며 코로나 확산으로 소비심리가 살아나는 듯하다가 다시 꺾이는 상황이 반복될 것이다. 급격하게 낮아진 출산율로 소비인구가 줄어드는

점도 가계의 소비성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것이다. 올해에도 출산율이 0.8명대를 유지할 것으로 보여 인구감소 추세가 심화될 전망이다. 민간소비 증가율은 지난해 -5.5%에서 올해 3.4% 수준으로 높아지겠지만 코로나 이전 수준의 회복은 내년에야 가능할 전망이다.

공급능력 채우기 위한 설비확장 및 자동화 투자 증가

설비투자는 지난해에 이어 높은 증가세를 지속할 전망이다. 수요확대에 생산능력 증가가 미치지 못하면서 제조업 가동률은 2014년 이후 최고 수준까지 높아졌다. 특히 비대면, 친환경과 관련되어 중기적인 수요확대가 예상되는 산업부문은 전세계적으로 기업간 경쟁도 치열해지면서 시장 선점을 위한 투자 확대가 예상된다. 공급부족이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반도체와 친환경 규제 강화로 수요전환이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되는 신재생에너지, 전기차 부품 분야가 투자확대를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비대면 수요 대응 및 재택근무 등 근무방식 전환을 위한 투자와 노동력 대체를 위한 자동화투자도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이다. 서비스업 부문은 지난해 수요부진으로 기업실적이 좋지 않아 전반적으로 투자여력이 높지 않으나 최근 투자자금이 빠르게 유입되고 시장경쟁이 확대되는 유통업을 중심으로 물류 확대 및 자동화를 위한 투자가 확대될 전망이다.



신안산대학교 2022년 봄 학기부터 스마트패키징과 개설



에이스기계(주)와 패키징 분야 전문 인력을 양성 계획

신안산대학교(총장 강성락)와 에이스기계(주)(대표이사 이철)가 지난 5월 12일 신안산대학교 세미나실에서 '상호협력 발전을 위한 협약식'을 개최하고 2022년 스마트패키징학과 개설을 발표했다.

강성락 총장은 "이번 협약은 패키징 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해 체결하는 것으로, 스마트패키징과가 현장 인력을 양성하는 전문대학들에게 모범이 될 수 있는 학과로 성장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하면서 "앞으로 학과 홍보부터 학교 차원에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내년 봄학기에 출범해 활기찬 학과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에이스기계(주) 이철 대표이사는 "초고령화된 산업계 기술인력과 관리자들뿐만 아니라 젊은 피 수혈을 기대하고 있는 많은 관련 분야 기업들이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오고 있다"며 "스마트패키징과의 성공을 위해서는 대학교와 지원 기업들의 노력 외에도 인쇄 패키징 분야 단체와 기관, 기업들의 적

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밝히며 업계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졸업과 동시에 오퍼레이터로 취업

2022년 새로 개설을 준비하고 있는 스마트패키징과는 에이스기계(주) 이철 대표이사의 패키징 자동화 설비 교육에 대한 오랜 숙원과 산업체 현장에서 요구하는 인력양성에 대한 신안산대학교 강성락 총장의 교육 철학이 이루어낸 성과라 할 수 있다. 스마트패키징과는 졸업생이 졸업과 동시에 에이스기계(주)에서 생산하는 자동 패키징 관련 설비를 운영하는 오퍼레이터로 취업하는 동시에

신입사원 기준 4천만 원대의 고액의 연봉이 보장된다.

스마트패키징과에는 자동 포장 설비에 특화된 정밀한 교육과정, 현장 전문가가 담당하는 보다 전문화된 교육내용, 전기, 전자, 기계, 포장, 디자인, 인쇄 등 다양한 분야가 융합되어 관련 전문가를 양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된다.

이날 협약에서 신안산대학교와 에이스기계(주)는 공동연구과제 발굴 등 양측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 등에 적극 협력하고 자동포장 설비를 운용할 수 있는 오퍼레이터를 양성하기 위해서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약속했다.



코니카미놀타, 스마트 컬러 인쇄기 AccurioPress C4080 시리즈 출시

인쇄부터 후가공까지 폭넓은 생산능력 갖춰

코니카미놀타 프로프린트 솔루션스 코리아(주)가 148년의 이미징 기술을 바탕으로 최신 기술을 탑재한 디지털 컬러 프레스 AccurioPress C4080 시리즈를 공식 출시했다.

이번에 출시된 AccurioPress C4080 시리즈는 최대 81ppm 고생산성과 3,600×2,400dpi의 고품질 엔진을 탑재하였다. 인쇄 자동화 및 스마트한 기능을 제공하여 고객 비즈니스의 확장과 성공을 지원한다.



폭넓은 용지 호환성

AccurioPress C4080 시리즈는 중량지, 배너 인쇄, 엠보지, 봉투인쇄 등 다양한 인쇄물을 생산할 수 있는 폭넓은 용지 호환성으로 고객사의 생산능력을 확대한다. 최대 360gsm 평량 지원하며 864mm 사이즈를 양면 인쇄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배너인쇄 및 A4 사이즈를 4-up으로 인쇄할 수 있어, 4단 접지 메뉴나 브로슈어와 같은 인쇄물을 효율적으로 제작할 수 있다. 또한, 봉투 인쇄 기능을 기본 탑재하여, 전문적으로 소량 다품종 봉투 인쇄 작업을 처리할 수 있다.

디지털의 효율성 극대화를 위한 인라인 옵션

AccurioPress C4080 시리즈에 신규로 적용된 4방 재단기는 4방 재단뿐만 아니라 누름선(오시), 천공 기능을 제공하여 여백 없는 인쇄(풀블리드), 배너, 명함, 카드, 브로슈어, 책표지 등의 다양한 인쇄물을 인라인으로 제작할 수 있다. 사각 책등 제작과 3방 재단 기능이 포함된 인라인 중철기는 최대 200페이지의 소책자를 간단하게 제작할 수 있으며, 인라인 무선 제본기는 최대 600페이지의 무선 제책 기능을 제공한다. 또한, 최대 6,000매를 적재 가능하며 인쇄 중에

도 장비를 멈추지 않고 인쇄물을 배출할 수 있다.

자동화 기능으로 고품질과 작업의 편의성 실현

컬러 인쇄 시 가장 중요한 컬러 매니지먼트와 양면 정합 조정을 자동화하는 Intelligent Quality Optimizer(IQ-501)를 AccurioPress C4080 시리즈에서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다. IQ-501은 두 개의 고성능 스캐너와 인라인 자동 측색기가 내장되어 원패스로 컬러 조정, 양면 정합 자동 조정 및 실시간 조정이 가능하다.

서울시, '활력탐구 홍릉'에서 다채로운 문화행사 추진

대학생 및 예비창업자, 신진 아티스트, 청소년 등을 위한 행사 진행

서울시는 21세기 도심형 연구단지인 재탄생할 '홍릉 일대 도시재생사업'을 널리 알리고, 홍릉 일대 기관과 지역주민 간의 소통을 통한 활력 증진을 위해 '홍릉 일대 문화행사'를 5월 24일부터 6월 27일까지 35일 동안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활력탐구 홍릉'을 주제로 하여 다양한 공모전과 온라인 캠프, 홍릉 기관 랜선투어 및 강연, 랜선 반상회, 온라인 전시회 등 홍릉 일대의 지역 자산 및 다양한 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전문지식 등을 쾌적하고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비대면 방식으로 구성하였다.

홍릉 지역 자산을 활용한 다양한 행사 열려

먼저, 홍릉 지역 주민과 전국 청소년·신진작가와 함께 홍릉의 현재를 살펴보고, 앞으로의 홍릉을 고민해 볼 수 있는 한글 글 그림 공모전을 비롯한 다양한 공모전이 개최된다.

대표적인 공모전은 '한글 글그림 공모전'으로 전국 초·중학생들이 홍릉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아이들의 시각으로 한글 자음과 모음을 활용하여 홍릉 지역 유·무형 자산을 풀어낸다.

홍릉의 기술자원 분야와 기관 내부를 랜선을 통해 다양하게 체험하고, 과학 관련 바이오 기업과 과학, 기술, 정보 관련 연구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통하여 취업 및 창업에 도움을 주기 위한 온라인 캠프와 투어, 창업 강연 등도 열린다.

또한 지역 주민들의 소통과 교류를 위해 다양한 주민참여 프로그램과 이벤트도 선보인다. 반상회·서포터즈·전시회 등을 통해 이번 홍릉 문화행사의 공모전 작품과 홍릉 일대 곳곳을

홍릉발굴전	상생 홍릉 커넥트	홍릉 소통창구
한글 글그림 공모전 접수기간 5.24(월)~6.20(일) 전시기간 6.23(수)~6.27(일) 대상 전국 초등 4~6학년 및 중학생	인공지능 온라인 캠프 신청기간 5.13(목)~5.26(수) 캠프일지 6.04(금) 대상 홍릉 지역 초등(5, 6학년) 및 중등(1, 2학년) 학생	랜선 홍릉 반상회 신청기간 6.01(화)~6.23(수) 반상회 6.25(금) 대상 지역 주민 대상 50명 이내
홍릉 신진아티스트 발굴 공모전 접수기간 5.24(월)~6.20(일) 전시기간 6.23	바이오 상생 프로젝트 신청기간 5.24(월)~6.02(수) 강연일지 6.04(금) 대상 과학과 바이오에 관심 있는 대학생 및 예비창업자	홍릉서포터즈 '홍이름이' 모집기간 5.24(월)~6.13(일) 활동기간 6.16(수)~6.27(일) 대상 홍릉 지역에 관심이 많은 청년 활동가 및 대학생
온택트 홍릉산책 신청기간 5.24(월)~6.02(수) 상영일지 6.04(금) 대상 지역 주민 및 기관 연구원	홍릉 창업 온라인 캠프 신청기간 5.24(월)~6.02(수) 강연일지 6.04(금)~6.05(토) 대상 창업에 관심 있는 대학생 및 예비창업자	홍릉 장례 일시 6.23(수)~6.27(일) - 홍릉발굴전의 우수인 작품 온라인 전시 - 참여 이벤트 실시
		홍릉충전 일시 6.23(수)~6.27(일) - 지역 사찰 방문 QR코드 인증 스탬프 펄리 챌린지 - 참여 이벤트 실시

랜선으로 만나볼 수 있으며, 가상공간 속에서 주민들과 함께 소통하고 교류한다.

'홍릉장례(전)·온라인 홍릉전'은 문화행사 기간 동안 진행되는 공모전 수상작 및 참여작품을 랜선으로 전시하여 시민들에게 홍릉의 문화를 알린다. 감상평 및 소감 등 댓글 이벤트에 참여한 시민에게 추첨을 통하여 소정의 상품을 제공한다.

이번 홍릉 일대 문화행사는 문화행사 공식 홈페이지(<http://www.hnbio.kr>), 문화행사 사회관계망(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등)을 통해 확인 및 신청이 가능하며, 문의는 홍릉 일대 문화행사 운영사무국(Tel. 070-4498-8540)으로 하면 된다.

promotion



상상이 글이 되고 디자인이 되다

문화와 예술의 가치를 창조하는 경성



정기간행물, 단행본, 백서, 보고서, 교육 자료, 사사 등의 인쇄 출판물의 기획부터 디자인, 인쇄 제작까지 One-Stop System으로 진행하는 대한민국 인쇄 산업의 기준입니다. 매년 적극적인 채용을 통해 국정과제인 일자리 창출에도 호응하고 있습니다.



KYUNGSUNG 경성문화회사

본사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6길-11 퍼스텍빌딩(지하 1, 1, 4, 5, 7, 8, 9층) T. 02-786-2999
 충무로 공장 서울시 중구 퇴계로31길 18, 1층(충무로3가, 용봉빌딩)
 을지로 공장 서울시 중구 마른내로 65-9(인현동 2가) / 세종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 편집·디자인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3-113

k·print 2021

KIPES 2021

제24회 국제 인쇄기자재전시회

K LABEL 2021

한국레이블전시회

K PACK 2021

한국인쇄패키지전시회

K DIGI PRINT 2021

한국디지털인쇄·솔루션전시회

K TEXTILE 2021

한국텍스타일전시회

K SIGN & AD 2021

한국사인·광고전시회

8.26 목 - 28 토

KINTEX 제2전시장

주최
한국이앤엑스 / 대한인쇄문화협회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 산업통상자원부 / KOTRA / 대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연합회
대한그래픽기술협회 / 서울특별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 한국디자인단체총연합회
대한인쇄연구소 / 대한출판문화협회 / 한국제책공업협동조합
한국스크린인쇄공업협회 / 한국골판지포장산업협동조합 / 한국인쇄학회

미디어후원



참가신청 문의

한국이앤엑스

Tel. 02.551.0102

E-mail. kprint@kprint.kr

www.kprint.kr



국제인쇄전시회